

# 간송미술관 대표작 공개 '눈길'

## '간송문화' 2부: '보화각' ... 9월 28일까지

간송 미술문화재단, 간송 C&D가 주최하는 '간송문화' 2부: '보화각'이 9월 28일까지 동대문 DDP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불상, 회화류, 자기류, 서예, 전적 등 총 114점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간송미술관의 대표작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명품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제목 보화각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으로 193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 보화각의 이름에서 따왔다. 보화각은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부에서는 재미명금동삼존불입상(국보 제 72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 285호) 금동여래입상(제 284호) 금동삼존불감(국보 제 73호)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금동삼존불감은 대웅전 안에 석가삼존상을 모신 형태의 소형 원불이다. 원불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소원을 비는 불상으로 이를 모시고 있는 소형 대웅전인 불감은 건물 높이가 17.8센티미터이다. 이 작품으로 당시 대웅전의 건축 양식을 짐작할 수 있다.

### 금동삼존불감 등 114점 공개

#### 동대문 DDP 디자인 박물관서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불입상으로 곁웃을 마치 보살의 천의(天衣)모양으로 접어 두어 어깨에 걸치고, 다 펴 입지 않아 치마의 아래 위가 노출되니 마치 치마만 입고 서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당나라 초기 양식이 신라화한 독특한 표현으로 보물 28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겸재 정선의 '압구정', 김득신의 '야묘도주' 등의 명품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1644~1328

재미명금동삼존불입상(癸未銘金銅三)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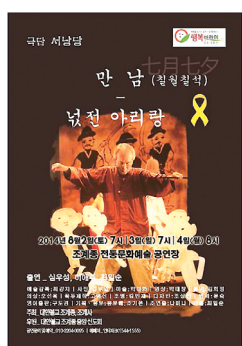


'간송문화' 2부: '보화각' 전시 9월 28일까지 동대문 DDP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금동삼존불감(국보 제 73호)

# 중앙신도회 '만남 님전 아리랑' 후원

## 8월 2~4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남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이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만남, 님전 아리랑' 공연을 선정하고 후원한다.



님은 사람  
의 님을 모양내  
어 오린 종이로,  
불교의 제사의  
식에서 유래되어  
민간 제사의  
식에서까지 널리  
퍼졌던 전통문  
화중 하나다. 문  
화재정 무형문  
화재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심우성 선생이  
2000년대 이후 님춤의 전통문화 복원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연은 8월2  
일~3일 오후 7시, 8월4일 오후 8시 총 3  
회이며 전석 20000원이다. (010)3204-  
3095 정혜숙 기자

8월2일~4일 조계종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3일간 개최되는 이 공연은 심우성(한국 민속극 연구소)과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서울대 명예교수), 극단 서낭당 최일순 대표가 등이 참여한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원혼을 달래고 일제 강점 이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또 가슴 쓰리게 쓰러진 님들을 기리는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 신심으로 그려낸 '불화'에 미래 담다

## 10회 전시 맞은 통도사 불화반 7월 27일까지 박물관기획전시실서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회장 신윤희, 이하 통도사 불화반)이 10번째 전시를 열었다. 1999년 개원해 불화장 하석정 스님의 유지를 받은 통도사 불화반은 현재까지 300여 수강생을 배출해 왔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65명을 배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한국 불화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오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16년째 불화반을 이끌고 있는 조해종 강사(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강사)는 이런 성과는 전통성을 고집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요즘 합성수지 재질의 포리졸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당장은 사용이 편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물감이 손에 묻어 나와요. 반면 아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감이 뭉쳐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성향이 있죠. 석정 스님께서는 전통 방식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꼭 아교를 사용합니다. 아교를 사용하면 그림을 배우는데도 두 배의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교를 사용하는 불화가 5%정도다. 이렇게 전통을 고집하는 방식이 소문나다보니 전문가들도 통도사 불화반을 찾은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많은 불화전문가를 배출한 곳이 통도사 불화반이기도 하다.

스님은 항상 불도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는데 수강생들에게 좋은 불교미술품을 꼭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불화반 전시 모습

### 故 석정 스님의 유지 받들어 전통방식 고수하며 작품 임해 이수자 65명 배출 전문가 양성도

친절하게 했고 늘 신심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문화재 중에는 석굴암처럼 미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있기도 하지만 거조암 오백나한, 운주사 천불천탑 등은 형식미는 떨어질 지언정 신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과 경외감을 일으키게 한다. 석정 스님은 이런 예를 들어 전문성보다는 신심으로 불화를 대할 것을 강조했다. 4년째 불화를 배우고 있다는 신윤희 회장은 "그림은 신앙으로 그린다는 스님의



통도사 불화반은 1999년 개원해 불화장 하석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통방식의 작업을 고수해 가고 있다. 사진은 조해종 강사(오른쪽 두번째)와 불화반 회원들의 수업 장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작품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는 스님께서 남기신 용왕령 초를 완성, 전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도사 불화반 이수자들로 구성된 돌샘 모임도 형성이 됐다. 구민정 돌샘 회장은 만 12년째 불화반을 다니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화를 그리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불화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수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절에 작품을 보시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 내놓은 신중탱은 경주 양남면 죽림정사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일 전시 오프닝에는 3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등 10회를 맞은

통도사 불화반 전시는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박경희의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38명 수강생의 후불탱화, 탄생도, 백의관음, 42수 관음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신중탱, 팔금강, 동진보살, 칠성탱, 독성, 산신, 용왕, 비천, 쌍용, 6국 연단 등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전시는 7월 27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또한 청원 스님의 '석가모니불', 불화강사 조해종의 '영산회상도' 오기웅의 '수월관음도' 이승규의 '지장탱화 석가모니불' 권영수의 '석가모니불(홍맹)' 문경옥의 '석가삼존도'가 전시된다. 불화반 수업은 매주 수요일 연구반·목요일 기초반이 진행된다. (055)384-0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세월호 추모다큐 '거위의 꿈' 제작

## 종교계·시민단체 모금 운동 전개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다큐영화 '거위의 꿈'을 제작한다. 모금운동으로 제작될 영화는 공동대표에 법안 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조현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신인령 전이화여대 총장, 성유보 희망래일 이사장 등이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가 맡았다. 고문으로는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과 천주교 강우일 주교가 참여한다.

감독은 '21세기의 묵시록(KBS)' '광주항쟁 그후 20년(KBS)' '한국 호랑이 그 흔적을 찾아서(KBS)' 등을 제작한 임종태 씨

가 맡았다. 임 감독은 "유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이른바 햇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들이 살아 있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한이 가슴에 맺힌 듯했다.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꼭 밝혀내고자 한다. 가족들과 추진위원단을 통해 이미 상당한 동영상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20분 분량으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제작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육내의 집회에서 무료 상영할 수 있는 30분 분량의 시범 버전을 제작할 계획이다. 모금 목표액은 4억원 이상으로 펀드 모금과 기부 모금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다큐영화 '거위의 꿈'이 제작된다. 이미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미리 제작된 엔딩 장면의 한컷.

이루어진다. 법안 스님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의 결과물이며 우리 사회의 비겁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영화제작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이 시대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 어린 영혼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010)7757-5907 정혜숙 기자

#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	--------------------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퀴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콘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